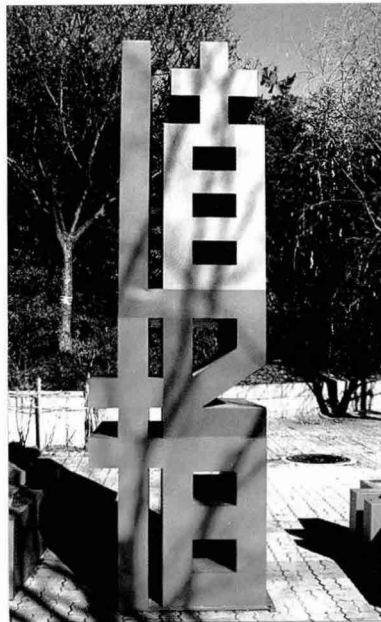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의 서지적 특징

직지는 고려말 충렬왕 24년(1298)에 전라도 고부에서 태어난 백운 경한(1298~1374)에 의해 간행되었다. 고려 왕실로부터 존경을 받는 승려였던 백운이 충정왕(1351년)시대에 원나라로 건너가, 중국 호주 지방에서 석옥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받은 '불조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 중에서 가장 요긴한 부분을 추리고 증보하여 직접 써서 상·하 권으로 재판집한 것으로서, 백운화상이 1374년(공민왕 23년) 76세의 나이로 취암사에서 입적하고 난 3년 뒤인 1377년에 제자들에 의해 청주목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직지의 편찬동기는 학승(學僧)들이 강원교화 중 정규교육 과정의 최고과정인 대교과를 마치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원이나 사회교육원 과정에 해당하는 수의과에서 학습하게 되는 교재용으로 편찬되었다. 책은 인도 불조사들의



선어를 다루고 있는 부분과 중국의 불조사들의 선어로 구성된 상권과, 조사들의 계승, 찬송, 범어, 문답, 서신 등이 수록되어 있는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하권의 39장중 38장만 전해지고 있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불도를 깨닫는 명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직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백운화상초

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원래 책의 이름이며, 흔히 줄여서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 '심요'고 한다.

책의 밑부분을 서근(書根)이라고 하는데, 직지 원본 서근에 '직지심경'이라고 쓰여 있으며, 직지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주최의 '책' 전시회에서도 전시도록에 책의 이름을 {직지심경}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불교에서 경(經)은 불교경전을 뜻하는 것으로, 직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경이 아니므로 직지심경은 잘못된 표현이다. 직지는 원래 상, 하권으로 되어 있으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속활자본은 하권만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첫째 장은 없고 둘째 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으로 되어 있다.

직지는 매쪽 왼쪽 상단, 즉 판심제(版

‘직지’ 문화가치 8694억원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문화적 자산가치는 8694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북개발연구원(원장 이태열)은 최근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조건부 가치측정(CVM) 방식으로 직지의 가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가치측정이란 환경과 문화, 관광자원 등 거리가 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 조사에 제시된 조건은 ‘직지의 보존 및 세계화에 부담금을 낸다면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였다. 전국 340명의 표본조사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44.4%(151명)가 ‘부담 의사있다’고 답변했고, 부담금은 5년 간 매년 1만840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이를 근거로 전국 가구 수에 적용할 경우 직지의 문화적 총자산가치는 86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心題)에 ‘直指’ 上·下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에는 인쇄 연월일(宣光七年丁巳七月), 인쇄장소(淸州牧外興德寺), 인쇄방법(鑄子印施)이 표기되어 있다.

직지의 재발견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1972년 유네스코가 주관한 “세계 도서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 기념으로 개최된 ‘책(LE LIVRE) 전시회’에 ‘문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로 간행되었음을 고증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는데,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부임한 폴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가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하였는데, 그 속

에 직지가 포함되어 프랑스로 건너갔으며, 앙리 브베르(Henri Vever, 1854~1943)가 180 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1950년경에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직지를 간행한 청주 흥덕사 터가 발굴되었으며, 1986년에는 충청북도 주최로 열린 <청주 흥덕사지 학술회의>를 통해 흥덕사가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92년에는 흥덕사지의 정비와 함께 비로소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었다.

청주시에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1995년부터 한국의 옛 인쇄문화 특별전을 기획하여 뉴욕 등 미국 7개 도시를 순회하였다. 한편 1993년부터 유네스코본부에서 마련한 세계기록유산에 직지를 등재시키기 위해 1999년 11월 유네스코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동 특별전을 개최하여 유네스코 인사들에게 직지의 가치를 홍보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 청주에서 개최된 인쇄출판박람회는 국내·외에 직지를 비롯한 한국의 인쇄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또한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논의는 1997년 청주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유네스코 아태지역 사무소의 텔리아 토리조스의 세계기록유산사업 소개로부터 촉발되었다. 이후 1988년 8월 ‘직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록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민간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위원회에서는 1998년 9월 유네스코본부에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프랑스국립도서관측의 반대에 부딪쳐 제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4차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에 안건으로 채

택되지 못하였다. 이때 청주시에서는 제5차 자문회의를 청주시에 유치하고자 자문위원들에게 직지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그 결과 2001년 제5차 유네스코세계기록 유산국제자문회의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99년부터 프랑스로부터 관측과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협의를 계속 추진하던 중, 드디어 2001년 6월경 프랑스로부터 관측으로부터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찬성도 반대도 않겠다는 승낙을 받아내게 된다. 그 결과로 2001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청주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사에서 세계 23개국 42점과 함께 심의 목록에 오른 후, 2001년 9월 4일 '승정원일기'와 함께 비로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어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직지는 지극한 정성, 욕망의 절제로서 보시(布施), 경건함, 기원(祈願), 자비(慈悲), 그리고 깨달음 등의 정신 문화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금속활자라는 '진품성과 유일무이한 현존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직지는 서양이 자랑하는 13세기 초 독일의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보다 70여년 앞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교정을 쉽게 해주었고 이 모든 것은 책의 신속한 발간에 크게 공헌하였다.

직지는 언어의 발달, 문자의 탄생, 목판인쇄술의 발달, 금속인쇄술에 의한 지식의 대량보급, 컴퓨터의 발달로 이어지는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증거인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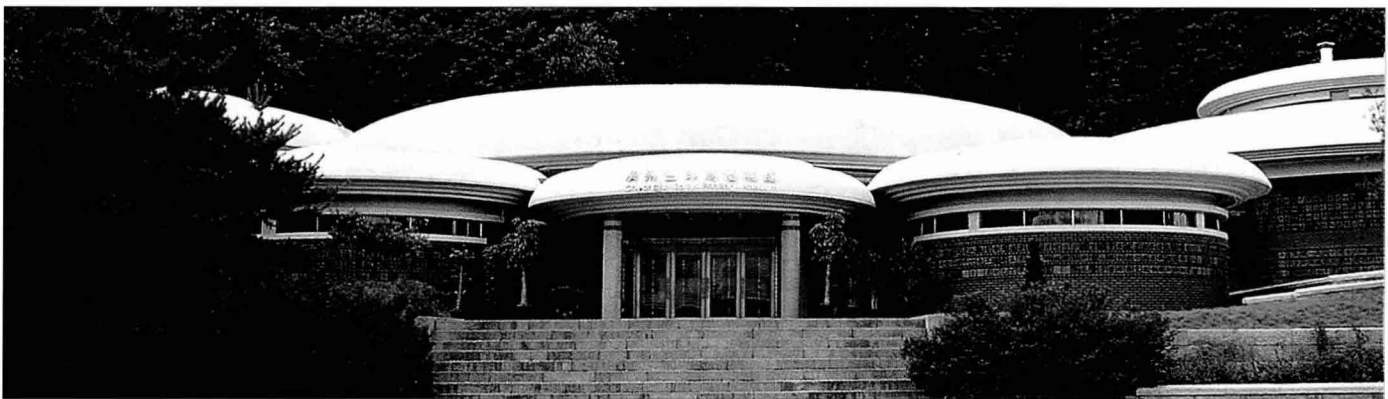
치이념이 고려 시대 불교에서 조선시대 유교로 바뀌면서 그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보 교환의 방법으로 이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활자 인쇄술에 적합한 기름먹의 발명과 한지를 사용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활판 인쇄술은 동양 인쇄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금속활자의 발명 목적이 책의 간행이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책이 지식의 대량보급을 통한 인류문화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또 한 민족의 문화 수준을 알아보는 척도가 된다는 면에서 금속활자를 이용한 직지의 가치는 민족적,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준다.

직지의 가치추정

직지는 그 가치에 힘입어, 고인쇄박



World)에 등재되어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직지의 가치와 의미

의사소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중의 하나로,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그 표현방법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또 기록되었는데, 활자의 발명과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책을 간행하게 된 것은, 인류의 위대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13세기 초 첫 금속활자 기록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와 '상정예문'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으므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직지의 가치가 더

시에 밀레니엄 동안 손꼽히는 가장 위대한 기술적 혁명 중 하나로 여겨진다.

금속활자를 만드는 작업은 그 자체가 장시간을 요구하는 고된 노동이었으며, 하루에 겨우 몇 장 정도만을 찍어낼 금속활자본을 만드는 작업에도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금속활자는 주로 100~300쪽에 해당되는 소량의 책 발행에 이용되었다.

13세기 초 발명된 한국의 금속활자인쇄술은 고려 말까지도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1403년(조선 태종 3년) '계미자'를 비롯하여 약 350여 종류의 각종 활자를 만들어 많은 종류의 책을 인쇄하였는데, 이는 통

물관을 건설하고, 오페라를 만들고, 지적재산권으로 활용됨으로써 파생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본원적 가치로서 산업화가 가능하고, 문화관광상품의 형태를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지와 같은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는 서로 연계되어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 문화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직지를 경영학적 측면에서 보면, 마

케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벤트 및 전시·공연, 역사적 요소의 복원 등을 통해 도시의 문화, 생산물을 개발하여 외부에 알리고 상품화함으로써 도시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마케팅은 상업적인 마케팅 이윤 대신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일종의 기업가적 접근으로, 청주라는 도시가 주체가 되어 자본과 방문객, 주민을 위해 동시공간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직지의 활용 방안

문화, 경제학자들은 문화예술작품과 문화유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외부적 경제성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문화유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외부적인 경제성이 부수적으로 창출된다.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유산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작품은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외부적 경제성을 유발시키며, 문화유산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작품은 그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외부적 경제성을 유발시키며, 문화유산은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인류적 가치 등을 창출하기도 한다. 즉 문화예술작품은 특정 지역에서의 외부적 경제성을 유발시키며, 문화유산의 근거가 되는 지역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이에 따라 부분의 수입증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지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며, 그것은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 및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나아가서 도시 주민 전체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 전국, 세계로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중앙정부와 청주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협력 체계 구축은 예산지원과 지역발전, 국가 이미지 제고 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지는 청주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상징하는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충청권 문화수준 향상과 각 도시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이미지 및 경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관 주도로 추진되던 직지 관련 사업들에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명실공히 지역주민 모두의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당연히 그러한 작업의 기초에는 직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의 축적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전문가 중심의 전담기구를 통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요약 및 결론

‘문화’를 새 천년 한국을 움직이는 힘으로 규정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 들어 처음으로 문화예산의 비중을 정부예산의 1%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말할 것도 없이 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이다. 이러한 21세기에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창의력을 통해 문화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새롭게 문화의 세기를 여는 의미일 것이다.

지역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는 더더욱 각별하다. 국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동체사회의 해체가 우려될 정도로 극심한 정주민구의 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주민구의 확보 정책은 그 실효성 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인구정책은 정주민구의 확보에서 유동인구의 확보로 그 전략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동인구의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문화관광 부문에의 관심제고와 투자일 것이다. 문화관광이란 것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찾아서 이동하는 행위라고 볼 때 그 중심에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로 ‘직지’를 선택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최근 들어 직지의 가치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발견된 가치를 잠재된 가치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옳바른 지적일 것이다. 그것은 독일 마인츠시가 구텐베르크에 쏟는 정성을 보면 쉽게 납득이 가는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추정된 직지의 가치는 8,694억원이다. 직지라는 자산이 비시장 재화이므로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추정한 가치임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는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그것이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가변적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직지의 가치를 화폐적 형태로 추정해 보는 것은 시론(試論)으로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